

“여고생 춤꾼들, 제2의 헤이마마 부탁해”



엠넷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의 진행자인 가수 강다니엘(가운데)과 심사위원인 아이키, 리정, 가비, 효진초이, 모니카, 허니제이, 라헤이, 노제(왼쪽부터)가 11월30일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서 주먹을 불끈 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엠넷

댄스리더들 후배 육성 위해 뭉쳐 10대 댄스팀 가르치는 과정 초점 효진초이 “대중적 관심 이어주길” 아이키 “스우파보다 사랑받을 것”

(라치카), 효진초이(웬트), 노제(웨이비), 라헤이(코카엔버터), 모니카(프라우드먼), 허니제이(홀리벵), 아이키(축) 등 '스우파' 8개팀 리더들은 “한국 댄스계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열정을 드러냈다.

감차 '스걸파'에 참여기로 결정했다. '스우파'의 신드롬급 인기 속에서 10월26일 종영 이후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전국투어 공연을 펼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배들을 키워내겠다는 의지이다. 또 멘토들이 “하나의 무대장치”가 아닌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를 다지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효진초이는 “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계속 이어가려면 10대들이 빛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비는 “지금이 댄스 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스우파'의 춤 열풍을 잇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다는 것을 제대로 느꼈다”면서 “멘토들도 10대들의 열정에 자극과 새로운 영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우파' 리더들은 “선의의 경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가르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모니카는 “참가자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라헤이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슬럼프 없이, 춤을 재미있게 출 수 있는 비결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우파'에서 데이비드 게타의 노래 '헤이마마'에 맞춰 춤을 선보여 커버댄스를 유행시킨 노제는 “제2의 '헤이마마'가 탄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이키도 “무서울 게 없는 'K(케이) 고딩(고교생)' 특유의 열정이 더해진 '스걸파'가 '스우파'보다 더 사랑받을 것”이라며 당당히 카메라 앞에 나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잘 봐! 이제는 고교생 싸움이다!” 시청자들을 춤 열풍에 빠뜨린 엠넷 '스트릿 댄스 파이터'(스우파) 출연진이 종영 한 달 만에 다시 뭉쳤다. 11월30일 선보인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스걸파)이다. '스우파'에서 경쟁을 펼쳤던 이들은 이번에는 고교생 춤꾼들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겸 멘토로 나선다.

● '스우파'와 무엇이 다를까
'스우파'가 팀 대결을 위주로 한 내용이었다면, '스걸파'는 '스우파' 댄스팀들이 각자 개성에 맞는 고교생 댄스팀을 선발해 가르치는 과정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10대들의 성장기와 '사제지간'의 애뜻한 유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허니제이는 “실력 좋은 10대들을 보면 노하우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욕심이 든다”면서 “참가자뿐 아니라 우리 역시 성장해가는 모습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의의 경쟁 즐겨주길'
제작진은 10대들이 무대뿐 아니라 틱톡, 릴스, 유튜브 등 영상 SNS 플랫폼을 통해 춤을 선보이고 있는 흐름을 다양한 미션에도 적극 반영한다. 이에 리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미 준비된 댄서들이 많

연예뉴스 HOT 5

정우성·고경표 등 코로나 확진...연예계 비상



정우성

배우 정우성과 고경표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돼 연예계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이들은 1·2차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나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30일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전날 정우성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고경표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원로배우 박정자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공연이 취소됐다. 앞서 11월28일에는 KBS 1TV '태종 이방원'을 촬영 중인 예지원이 확진됐지만 제작진은 “11월23일 이후 예지원과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BTS 공연 관련 트윗 이틀간 2600만건 게재



방탄소년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면 공연을 펼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온라인도 뜨겁게 달궜다. 11월30일 트위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LA 스파이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를 연 11월 27일·28일 이틀 동안 전 세계에서 2600만건이 넘는 관련 트윗(게시물)이 게재됐다. #PTD_ON_STAGE_LA, #Stage_For_ARMY 등 관련 해시태그가 이들의 대면 콘서트를 축하하는 의미로 쓰였다. 콘서트 직전 멤버 지민이 올린 트윗은 75만 건의 리트윗(트윗을 자신의 피드에 옮기는 것), 220만건이 넘는 '마음에 들어요'를 받았다.

미나리, 영국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영화' 선정

영화 '미나리'가 영국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올해의 영화'에 뽑혔다.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영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14편을 '올해의 영화'로 선정, 발표된 가운데 윤여정이 출연한 '미나리'도 포함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나리'가 “1980년대의 감성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또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로, 매우 보편적이다”고 호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나리'와 함께 올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티탄',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한 '더 파더', 드니 빌뇌브 감독의 SF영화 '듀' 등을 '올해의 영화'로 뽑았다.

니쥬, 데뷔 첫 정규 앨범 日 오리콘차트 정상



니쥬 정규 1집 '유(U)

한국의 JYP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소니뮤직이 론칭한 걸 그룹 니쥬(Niziu)가 데뷔 첫 정규 앨범으로 일본 오리콘차트 정상에 올랐다. 11월 30일 오리콘에 따르면 11월 24일 발매한 니쥬의 정규 1집 '유(U)'가 최신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11월22~28일) 1위에 올랐다. 또 올해 기준 1집 음반으로 발매 첫 주 10만장 판매고를 올린 유일한 여성 가수가 됐다. 타이틀곡 '잡스틱'으로는 일본 아이튠즈 종합 톱송 차트와 J팝 톱송 차트 1위도 기록했다. 유튜브로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2280만뷰를 돌파했다.

유명인 얼굴·이름·음성, 법적 재산상 가치 인정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이 법적 재산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11월30일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초상·성명 등이 무단사용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은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7일 공포되는 개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마마무 콘서트 열기 스크린으로 보세요

3일부터 전국 39개 CGV서 개봉 큰 화면·풍부한 사운드 생동감 ↑

그들 마마무가 지난 7년 동안 활약해온 자신들의 모습을 영화로 선보인다. 솔라·문별·휘인·화사로 이뤄진 4인조 그룹 마마무는 2014년 6월 데뷔한 뒤 올해 7주년을 맞아 8월 펼친 온라인 콘서트 실황을 카메라에 담아 스크린에서 내어 보인다. 3일 전국 39개 CGV에서 개봉하는 '마마무 2021 WAW 콘서트 더 무비'이다.

마마무는 영화를 통해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본 무대 실황은 물론 그들

안 팬들에게 미쳐 들려주지도, 보여주지도 못한 이야기와 모습을 공개한다. 이들의 히트곡 25곡도 102분의 상영시간을 채운다.

이들에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트와이스, 몬스타엑스, 제스키스, 아이즈원, 가수 김재중 등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잇따라 선보여 왔다. 특히 케이(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영화를 공개하며 팬덤을 확인했다. 블랙핑크의 경우 데뷔 5주년을 맞은 올해 여름 한국을 비롯한 100여개국에서 '블랙핑크 더 무비'를 개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흥행하지는 못했다. 방탄소년단이 2018년 11월 개봉한 '번 더 스테이지:더 무비'와 이듬해 1월과 8월 각각 선보인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과 '브링 더 소울:더 무비' 등 일부 영화로 제작각 불려

오는 전국 30~35만여명이 최대치로 꼽힌다. 상당수 영화는 전국의 소수 극장에서 '팬심' 강한 관객을 겨냥하며 스크린에 내 걸렸다.

그럼에도 가수들의 공연 실황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영화가 잇따라 제작돼 개봉하는 건 왜일까. CJ CGV 황재현 커뮤니케이션 전략장은 11월30일 “큰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 편안한 좌석을 갖춘 극장에서 콘서트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콘서트 못지않은 생동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이다. 가수들로서도 극장의 첨단시설에 힘입어 자신들의 무대를 더욱 실감나게 표현해낼 수 있다. 황태은은 이어 “감염병 확산 사태로 무대에서 가수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기획사들과 협업해 선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카카오TV로 돌아온 '뉴 사랑과 전쟁'...벌써부터 시즌제 예감

불륜 대신 시의적 갈등 큰 공감

‘마라맛 끝판왕’이 돌아왔다.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부부간의 내밀한 고민을 과감하게 그려낸 KBS 2TV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카카오TV의 무대를 통해 '뉴 사랑과 전쟁'으로 이용자들을 만나고 있다. 제작진은 시청자 공감 속에서 시즌제 제작 가능성까지 엿보고 있다.

'사랑과 전쟁'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지 시즌1,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즌2를 각각 방영했다.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들의 사연을 유니버스 드라마로 선보였다. 방영 당시 10%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모았다.

최근 공개된 '뉴 사랑과 전쟁'은 OTT 특성을 살려 20분 남짓 에피소드를 24부작으로 선보이고 있다. 집값 등 부동산 이슈, 학교폭력, '독박육아' 등 시의적 아이템을 부부 갈등의 소재로 삼았다. 11월 30일 연출자 손남욱 두레아트플랜 대표

는 “이전에는 불륜 이야기를 주로 다뤘으나 바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폭넓은 이용자가 공감할 소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최영완, 장가현, 배정아 등 '사랑과 전쟁'의 출연자들도 새 버전에 나섰다. 신혼부부 에피소드는 가수 박세욱, SBS '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 김성은 등이 꾸려간다. 11월30일 오후 현재 최대 25만뷰를 얻은 영상에는 “이전 출연자들이 그대로 나와 반갑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이용자들의 관심은 과거 이야기를 담은 KBS 공식 유튜브 계정 '케미TV'로도 향한다. “'뉴 사랑과 전쟁'을 보다 여기까지 왔다”는 댓글이 이를 보여준다. 손대표는 “시즌제로 만들기 좋은 포맷이고, 이용자 반응도 좋아 새 시즌 제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